

납품업자에 상품권 강매하면 과징금 폭탄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상한 2%→20~60%로...가중사유시 50% 추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경우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였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

간임대료의 범위로 강화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으로 1000만~5억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으면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납품가액을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최대 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및 장려금을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자진시정의 경우 40~20%, 조사협력 30~15% 등 사유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최종 부과금 결정은 부담능력, 부담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져 고질적 병폐인 관측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유가 급등에 코스피 ‘주춤’

28.73P 하락...2000선 무너지며 1991.16

국제유가가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으로 급등세를 지속하자 코스피가 다시 2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27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73포인트 내린 1991.16에 장을 마감했다.

국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게 되면 실물경기까지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우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명목상 배럴당 130달러를 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실물경기 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서대일 연구원은 “2008년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120달러 수준으로 현재 명목 유가 기준으로 10%가량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명목 유가 수준은 132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두바이유가 최고치에 달했던 8월 월평균 유가가 131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명목 유가 기준으로는 18%가량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시 두바이가 100달러를 웃도는 구간에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고, 120달러를 넘는 구간에서 제조업 생산 감소가 심화된 경향이 있다고 서 연구원은 지적했다.

앞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지난 24

일 3거래일째 상승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35달러 오른 121.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94달러 상승한 109.77달러로 집계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1.85달러 뛰어서 125.47달러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이란이 최근 4개월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등 이란의 핵 우려에 따라 상승했다.

이 때문에 화학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LG화학이 3.45% 내렸고 금호석유 3.07%, 금호타이어 1.88% 등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NH증권 최지환 연구원은 “경기 호황기에 유가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기부진시에는 제품가격 인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원료가격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이희철·이명현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석유 정제 마진은 지난해 뚜렷한 조정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전체 정제마진은 고유가 진정 여부와 함께 수요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1월 대출금리 ‘썰렁’

저축銀 2.44%P·은행 가계대출 0.43%P ↑

올해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라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신규 대출이 다소 억제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2012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기업 대출 금리는 5.8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43%포인트나 오른 5.80%였다. 2010년 3월(5.80%) 이후 최고치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일

제히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올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17.15%로 전월보다 2.44%포인트나 올랐다. 월별단위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7.2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6.28%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기업대출이 줄고 고금리인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컬러풀’ 봄
올 봄 구두는 지난해부터 인기였던 다채롭고 비비드한 컬러와 파스텔 톤을 믹스매치해 표현하는 것이 올 컬러 트렌드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목의 스트랩으로 날씬하고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 파스텔 톤의 펌프스나 오픈토웨지힐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천명 돌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도 시행 이후 한달여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3일 기준으로 3094명이 신청해 이중 2235명이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가입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전체의 2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1.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였고, 30~39세 16.4%, 60세 이상 11.8% 등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기준보수 등급별로는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46.6%)과 가장 낮은 1등급(27.6%)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

/연합뉴스

“50m이내 편의점 있으면 점포 안낼 것”

헤미리마트 중복 출점 금지기준 마련

보광헤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광헤미리마트는 또 100m 이내 출점을 할 때도 기존 점주와 먼

업체다. 세븐일레븐은 이미 50m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 답배”라면서 “50m 이내에 출점하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102로 3P 상승

올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한 ‘2012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로 전달 9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환경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나타낸 종합지수로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100 이상이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광주·전남지역의 현재생활환경

CSI는 89, 생활환경전망CSI는 99로 전달에 비해 4포인트씩 상승했다.

또 가계수입전망CSI는 97로 전달과 동일했지만 소비지출전망 CSI는 107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올라 64를 기록했으며, 향후경기전망CSI는 80으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은 6개월 후의 경기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12%), ‘고용시장’(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적은 투자로 큰 효과에 크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썩지않고 강하며 수명이 영구적인
스텐레스 Extrong못으로 시공하신 목조건축물의 구조물 데크 사이딩 등 금속기와 방부목의 조정시설물 해양시설물 등 등은 수십년 수백년 후 까지 안전하고 튼튼하게 귀하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08-8 (주)두남금속공업
Tel(031)985-3003 Fax(031)985-3004
www.doonammetal.co.kr

木造建築物의 不老長生 못

 **우리집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이제 **전기요금** 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이젠 주방도 전기시대!

신축 계획중인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시스템 구성도**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표)

기초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강남산업**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